

2020 출판도시 인문학당

주최
출판도시문화재단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inmunchub.org

책방거리 프로그램

출판도시 인문학당의 책방거리 프로그램은 출판도시
내외부의 출판사와 출판 관련 단체, 문화단체 그리고
작은 책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www.inmunclub.org

출판사·단체와 함께하는 강연

그린비출판사

질문이 있는 삶- 타인은 지옥인가?

타인과의 공존은 왜 어려운 것일까? 타인은 과연 내가 물리쳐야 할 적일 뿐일까? 사르트르와 카뮈의 사상을 토대로 시도해보는 타인의 해부.

일시. 7월 중
장소. 엑스북스아카데미(서울 마포구 와우산로 180, 4층)

* 참가비: 회당 5,000원
* 이 강연은 총 3강좌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변광배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도서출판 동녘

강남순 선생님의 페미니즘 이야기

아이는 몰라도 될까? 어른은 정말로 잘 알고 있을까? 탈코르셋, 집안일, 차별, 소수자, 데이트 폭력 등은 아이들도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문제이다. 어른들이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지 고민하는 페미니즘의 여러 주제를 놓고 함께 이야기 나눈다.

일시. 7월 30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스틸로 그림책 북카페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35 사운즈 B1)



강남순 | 텍사스 크리스천대학교 브라이트 신학대학원 교수

도서출판 두두

체육관에서 만난 페미니즘

분야를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 혐오와 성차별 관련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성의 몸'이 있다. 몸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체육관에서 여성은 어떤 차별 또는 편견과 마주하는지, 사회가 '운동하는 여자'를 어떻게 소비하는지 함께 토론해보고자 한다.

일시. 5월 22일(금)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생각하는 바다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94번길 24, 지하 1층)



양민영 | 《운동하는 여자》 (호밀밭, 2019) 저자

돌베개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그리고 그 후 1년

현장 실습생 르포르타주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 출간된 후 1년이 지났다. 시사IN 장일호 기자와 함께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일하는 것과 우리의 삶에 관해 많은 이들과 함께 이야기함으로써 서로의 슬픔을 나누고자 한다.

일시. 6월 8일(월) 오후 7시 30분
장소. 벙커1(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은유 | 글 쓰는 사람

뜨인돌

책마을에 깃든 새들의 노래

출판도시는 책의 도시일 뿐 아니라 새들의 도시이기도 하다. 대형 몰새부터 작은 산새까지, 멸종 위기종부터 마을 근처의 새들까지. 이 도시에 깃든 다양한 새들을 야외에서 직접 탐조하며 생태학과 인문학의 접점을 찾아본다.

일시. 5월 23일(토) 오전 10시
장소. 출판도시 일대 갈대샨강, 공원, 유수지(경기 파주시 문발동)



정다미 | 꾸룩새연구소 대표

말과활 아카데미

새벽 세 시의 몸들에게- 두려움과 직면하기

견디기 어려운 것을 견디고, 계속 살고, 계속 살리는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시간. 거리 위의 고통을 고발하는 일과 몸의 고통을 견디는 일을 함께 말한다. 질병, 나이 들, 돌봄이라는 의제에서 사회적 맥락과 구성을 인지하면서도 지금 마주한 나날을 충만하게 산다는 것에 관해 함께 이야기해본다.

일시. 5월 7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말과활 아카데미(서울 마포구 성지길 36, 3층)
*참가비: 회당 10,000원



김영옥 |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상임대표

명필름 아트센터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관하여

음식문화는 인간 사회의 모든 분야와 긴밀히 결합하며 변화, 발전해왔으며 그중 육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든 확고한 '지위'를 획득해왔다. 특히 현대사회에 이르러 육식은 이른바 '4N'으로 불리는, 사회적으로 정상적이고(normal), 진화적으로도 자연스러우며(natural), 영양학적으로 필수적(necessary)일 뿐만 아니라 취향으로도 선호되는(nice) 음식문화로 자리 잡았으며, 채식은 그 반대라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즉 육식의 신화가 채식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 것이다. 이런 생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새로운 물결인 비거니즘(Veganism) 운동을 소개한다.

일시. 5월 16(토) 오후 1시
장소. 명필름 아트센터 영화관
(경기 파주시 회동길 530-20)

*참가비:11,000원
(영화·강의·음료 포함)



김한민 | 작가

모요사출판사

문학잡지로 읽는 1920년대 문화예술계

지금부터 백 년 전인 1920년대는 《창조》《백조》《폐허》 등 다양한 문학잡지들이 꽃을 피운 시대다. 이 잡지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지만, 김관호·김찬영 등 한국 서양화 1세대 화가들이 동인으로 참여해 미술계에는 큰 의미가 있는 보석 같은 잡지가 있다. 바로 1924년에 창간해 5호까지 발행한 《영대(靈臺)》다. 예술지상주의를 표방하고, 문학인으로는 임장화·이광수·김동인·주요한·김억 등이 참여한 《영대》를 통해 당시 문화예술계의 여러 이슈를 살펴본다.

일시. 5월 29일(금) 오후 7시
장소. 누군가의집(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103-1)



홍지석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사계절출판사

고전, 패러디하기

카프카의 명작 《변신》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해석한 《변신 인 서울》을 함께 읽으면서, 고전을 읽는 방법과 현실에 알맞게 재해석하고 패러디하는 법을 배운다.

일시. 6월 중
장소. 미정



한정영 | 소설가

살림출판사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통해 살펴보는, 문학 텍스트와 번역가의 일

《시녀 이야기》《은하수를 노래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수전 손택의 말》《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미비포유》 등 다수의 명작과 베스트셀러를 국내에 소개한 김선형 번역가에게 《가재가 노래하는 곳》을 번역한 과정과 창의적인 표현법에 관한 강의를 듣는다. 전반적인 출판 과정에 역자가 참여하고 기여하는 범위와 역할을 소개하며, 출판·매체 번역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조언을 건네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시. 5월 1일(금)~7월 31일(금) 중
장소. 살림출판사 파주 사옥
(경기 파주시 광인사길 30)



김선형 | 문학번역가

소동출판사

미술치료를 넘어 사진치유로

누구나 손안에 카메라가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사진을 자기 삶에 잘 활용하고 있을까. '어떻게 잘 찍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사진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기성장을 위한 도구가 된다. 사진치유 에세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의 저자 임종진 작가에게 사진치유란 무엇인지, 사진이 어떻게 자존감을 살리는지, 사진이 치유활동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아본다.

일시. 7월 9일(목) 오후 7시
장소. 시냇책방(소동출판사 사옥 1층, 파주시 돌곶이길 178-23)



임종진 | 사진심리상담가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한국전쟁이 버린 인간쓰레기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중국군 포로의 삶을 다룬 하진의 장편소설 《전쟁쓰레기》를 통해 적군의 시각에서 본 한국전쟁 이야기와, 인간쓰레기로 분류되었던 전쟁포로들의 이야기를 이 책의 번역자 왕은철 교수에게 들어본다.

일시. 6월 20일(토) 오후 2시
장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경기 파주시 파평산로 399 번길 42-19)



왕은철 | 전북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책방과 함께하는 강연

꿈틀책방

과학 교양서의 고전 《코스모스》 제대로 읽기

시를 사랑하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에게 듣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이야기. 과학 교양서의 고전에서 21세기 지구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다.

일시. 6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꿈틀책방(경기 김포시
봉화로163번길 10, 1층)
*참가비:10,000원



이명현 | 천문학자

동네책방 숲

역사 속 인간 실존의 존엄, 그래픽 노블로 만나다

작가주의 성향이 짙게 배어나고 작품의 소재가 매우 폭넓어 그 자체로 깊이 있는 문학작품이 되는 '그래픽 노블'에 관해 알아본다. 특별히 최근 해외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김금숙 작가의 작품을 통해, 인간 실존과 존엄의 소중함을 중심에 두고 우리나라 근대사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본다.

일시. 6월 9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동네책방 숲(광주 광산구
수완로 74번길 11-8)
*참가비:회당 10,000원



김금숙 | 작가

음악·서점 라이너노트

음악미학(音樂美學)- 클래식 음악 연표 듣는 법

악보가 출판되기 시작한 것은 1501년이다. 악보 출판 덕분에 음악이 대중화하고 후대에까지 전달될 수 있었다. <클래식 연표 듣기>에서는 르네상스 중후기부터 시작해 화려한 양식의 음악이 유행한 바로크 시대를 거쳐, 균형과 조화를 중시한 고전주의 시대, 개성이 뚜렷한 스타일을 추구한 낭만주의를 지나, 작곡가들이 각자의 고유한 음악 언어를 만들고 발전시켜나간 모더니즘과 현대 음악까지를 훑어보며 음악가와 그 시대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시. 5월 7일(목) 오후 8시
장소. 음악·서점 라이너노트(서울
마포구 양화로 15안길 6)
*참가비:회당 20,000원



김동연 | 출판사 프란츠 대표

복살롱 이마고

전환의 시대, 마을을 이야기하다

인간과 인간, 여타 생명체와 인공지능(AI)이 더불어 살아갈 포스트 휴먼 시대, 코로나19를 비롯한 각종 위험과 공포가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의 시대에 마을이 어떻게 답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마을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일시. 5월 중
장소. 복살롱이마고(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강앞로 78)



조한혜정 | 연세대 명예교수

아스트로복스

도시와 주거권

서울 쪽방촌의 실태를 살펴보고 시민들이 주거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 도시에서 모든 계층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 나눈다.

일시. 7월 18일(토) 오후 2시
장소. 아스트로복스(부산 금정구
금강로 321번길 7, 1층)
*참가비:10,000원



이혜미 | 한국일보 기자

책방이층

다른 존재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비거니즘은 무엇을 뜻하며, 사람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비건이 되기로 결심할까. 《나의 비거니즘 만화》의 저자 보선이 동물권, 환경권으로서의 비거니즘에 관한 이해와 비건을 향한 첫발 내딛기를 돕는다.

일시. 5월 23일(토) 오후 3시
장소. 책방이층(대구 중구 달구벌
대로 393번길 48, 1층)

*참가비:회당 10,000원

한길문고

과학의 의미를 묻는 시민들에게 《과학의 품격》 신간 북토크

앞으로의 교양은 과학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두꺼운 과학책, 특히 공식이 있는 과학책은 읽기 힘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기에도 좋은 과학책이 많이 출간됐다. 인문학 분야만큼 시야를 넓혀주고, 심지어 더 큰 감동과 울림을 주기도 하는 책들이 있다.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과학을 주제로 삼아 편안한 북토크를 열고자 한다. 과학자 강양구와 함께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과학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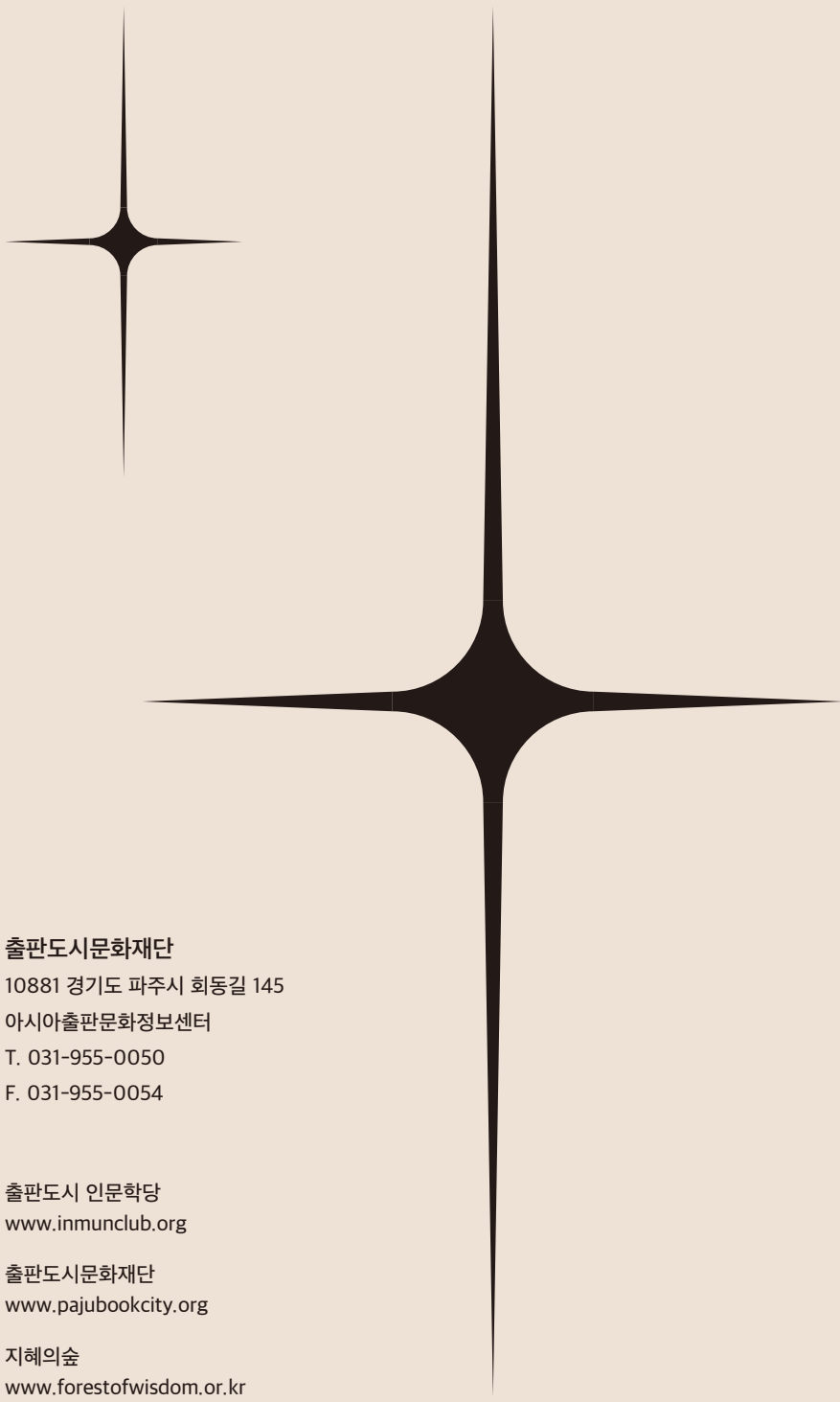
일시. 6월 12일(금) 오후 7시
장소. 한길문고 문화공간(전북
군산시 하나운로 28, 2층)



보선 | 일러스트레이터



강양구 | 과학자



출판도시문화재단

10881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145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T. 031-955-0050

F. 031-955-0054

출판도시 인문학당

www.inmunclub.org

출판도시문화재단

www.pajubookcity.org

지혜의숲

www.forestofwisdom.or.kr